바다로 가면 물결치는 고래가 있다 / 강수민

고래가 되고 싶다 바다에 가서 큰 고래가 되고 싶다
단단한 꼬리로 열매와 햇빛을 가득 모아 세상의 모든
새끼들을 위해 젖을 물리고 싶다.
차가운 물밑에 숨은 추억들을 트이게 하는 강한 물줄기가 되고 싶다.
산호빛 안개 속에서 등대의 희뿌연 향을 품은 채 헤엄치고 싶다.

헨젤과 그레텔

울울창찬한 초록 아래
누군가의 일부분이 반짝거린다
사탕조각처럼

그 흔적을 따라가려 하니
그림자가 넘어졌다

무릎을 살피던 그녀는
동화를 아냐고 물었다

버림 받은 아이들을
잊혀진 세계의 입구에서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마녀

그 여자의 살덩어리를
집어먹으며 쾌락의 집으로 향하는
네 발걸음을 아냐고 물었다

반달

추석 때
어머니가 만들어 준
노란 녹두 빈대떡
아껴 먹으려고
하늘에 걸어 놓았더니
누가 먹었나
반 만 남은 빈대떡

부부 3

살다보면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하는데
열고 싶다
알고 싶다

설 익은 밤
비린내 나는 콩나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참는다

남편이 밤새 무엇을 했을까?

뚜껑을 닫는다
유혹을 닫는다

꽃

내 입속에 들어간
참외씨 하나
어느새
앞마당에
꽃으로 피어났다

팔 다리 굽혀
온몸을 살라서
흙 위로
내가 피어난다

달콤한 향기 찾아
벌 한 마리
날아든다

저 꽃 사라지면
꼬갱이 줄기마다
노오란 열매 맺힐까

발냄새 나는 시

내 시는 발냄새가 난다
고시원 전등불 아래
톱톱하게 떠다니는 발냄새
쪼그려 발톱 깎다 맡아보는
꾸리한 꼬랑내 난다

고시원을 나오던 아침
꾸덕꾸덕한 양말
발바닥에 달라붙은 냄새는
형체도 빛깔도 소리도 없다

삐걱대는 글자들은
뭉개져 보이지 않고
동굴에 갇힌 울림처럼

변기 속에 우물

변기에 앉아 우물물에 잠긴다

찰랑찰랑 길어 올리다 우물벽에 부딪혀
울컥 어둠으로 추락하는 탈옥수들
절반만 끌어올렸다고 양철두레박
들림 받은 지하수들도 차갑게 수군거렸다

깊고 음습한 곳을 첨벙거리며
퍼 올린 우물물을 몸에 가득 담아
걷다가 그만 흘러넘쳤다 왈칵
쏟아져버렸다

오늘도 절반은 빈 몸이 아파트 현관손잡이를 비틀고
질척대던 하루가 철커덕 문 닫는다

가득 담기 위해 깨끗이 싸버리라는 변기
그 입술 위에 비죽이 엉덩이를 얹고
창백하게 갇힌 정화수 치밀어 오르는 비데물에
쏟아진 치욕을 씻는다

망각의 하수구로 밀어내고 흘려버리는데도
변기 속에 우물물이 계속 채워지고 있다